광주 '사랑의 온도' 100도 넘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달 2일 설치한 '사랑의 체감온도탑'이 22일 100도를 넘었다. 금액은 13억6천788만4천828원으로, 목표액 13억원에 비해 5% 더 모금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3억1천144만7천100원이 모금됐었다. 전남의 경우 이날 현재 목표 40억원 중 35억7천만원이 모금돼 온도계 눈금이 90도에 머무르고 있다. 모금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외국인 범죄 사회문제 됐다

작년 155명 입건…갈수록 지능화

광주·전남 1만6천명 체류…매년 증가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다, 유형도 다양해져 폭력이나 절도 등 강력사범부터 여권위조나 위장결혼 등 지능범이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체류자와 범죄 증가가 인종·국가 간 갈등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증가**=2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절도와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입건된 외국인은 지난 2004년 140명(구속 44·불구속 96)에서 2005년 202명(구속 60·불구속 142)으로 45%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55명이 입건돼 전년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이는 전남청이 매년 수차례 해오던 위장결혼과 여권 위조 등 외국인 지능사범에 대한 기획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20% 안팎이던 위장결혼·위조여권 사범 등 지능범이 2~3년 사이 50~60%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2005년에는 지능사범으로 입건된 외국인만 128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범죄 왜 늘어나나?**=매년 체류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날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모두 1만6천여 명. 지난해 말 1만3천여 명이던 것에 비해 23%가 늘었다. 지난 2004년 9천800명이었던 체류 외국인이 2년만에 63% 가까이 증가했다. 체류 외국인 중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이며, 최근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동남아 유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종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도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다.

전남청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체불임금에 시달리다 동료 외국인들과 함께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외국인이 이국(異國)땅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의지하다 보니 조직범죄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 갈등 초래**=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는 국내 신 빈곤층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등으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흡수되면서 빈곤계층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국인 체류자와 범죄 증가가 인종·국가 간 갈등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 대부분이 노동자이고 이 가운데 취업사기와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기면서 돈을 쉽게 벌기 위해 절도 등의 범죄에 빠지고 있다"면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국인들의 범죄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책은 없나?**=외국인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 파악과 범죄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전남경찰청은 외국인 범죄가 많은 목포와 광양·여수경찰서에 외국인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외사계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광주 광산서와 북부서에 외사계를 신설해 외국인 근로자의 동행 파악과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광주 광산서와 북부서에 개설한 외국인 범죄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해 분기별로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범죄 예방 및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하지구 개발 도면 유출 관련

광주시 공무원 2명 영장

광주 서부경찰은 22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박모(45·토목 6급)씨와 건축주택과 백모(40·토목 7급)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광주시 서구 세하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도면 등이 포함된 3페이지 분량의 공문서를 임의로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면은 2005년 11월 광주도시공사가 용역회사인 K엔지니어링으로부터 납품받아 광주시에 전달한 것이다. 이 도면은 그러나 최근 세하지구 인근 부동산에 유포돼, 택지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박씨 등이 도면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도면을 유출한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씨 등은 도면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광주시 건축주택과 계장과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도면을 갖고 있던 부동산 업자가 전직 건설회사 간부로부터 도면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간부의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박건배 前 해태 회장

'회삿돈 횡령'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22일 위장 계열사들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나 다른 회사 불법지원 등에 쓴 박건배(58) 전 해태 회장과 해태 위장계열사 썬프로 상사 대표 정모(5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 등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썬프로 상사 등 위장 계열사 5곳의 회사 자금 35억여원을 빼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스키장·썰매장·빙상장 안전사고

안전수칙 무시 소비자 책임도 크다

겨울철 사고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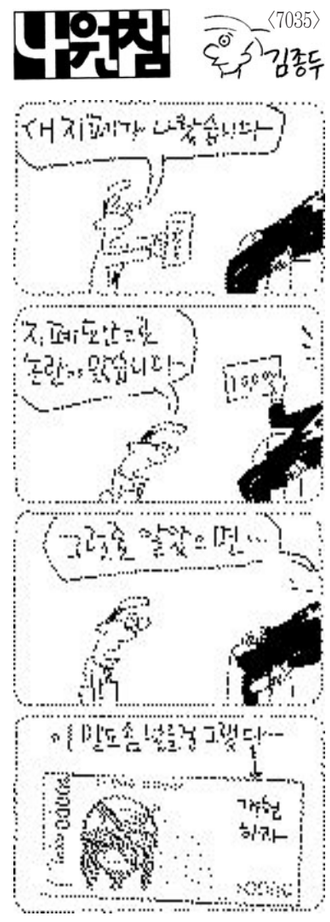
최근 스키장·썰매장·빙상장 등에서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치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차적인 책임은 관리 주체이지만, 안전수칙을 무시했거나 돌발사태에 게을리한 소비자의 책임도 크다.

◇**스케이트장**=서울지방법원은 빙상장에서 마주 오던 초등학생과 부딪치며 넘어져 '대퇴골 경부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박모(43)씨가 L빙상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빙상장의 관리감독 및 주의 의무 소홀의 이유를 들어 과실비율 60%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40%의 과실을 인정했다.

◇**스키장**=전주지법은 스키 초보인 중학생이 중·상급자 코스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 스키장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중학생 부모에게 70%의 과실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위험이 상존한 스키장에서 돌발사태에 게을리 대비한 책임을 물어 30%의 과실 비율 책임을 인정했다. 스키장은 리프트를 타는 지점에 초·중·상급자 표시를 했고, 안전요원 배치, 구내방송 등을 수시로 한 점을 인정해 과실 책임을 묻지 않았다.

◇**눈썰매장**=부산지법은 눈썰매장 양쪽 매트리스 보호대의 쇠파이프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에 대해 썰매장측에 과실 비율 50%만을 인정했다. 피해자도 썰매를 타기 전 방향전환과 정지방법 등을 정확하게 익혀야 하는 데 별다른 주의 없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안정장비를 갖추지 않고 눈썰매를 타다 일어난 사고와 관련, 소비자에게 적합한 복장과 안전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40%의 과실 책임을 물었다. /최권일기자 cki@



굴 따다 그물에 걸려 숨져

지난 21일 오후 6시51분께 강진군 마량면 서중리 갯벌에서 굴을 따던 김모(여·70)씨가 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찜질방서 '황금돼지 휴대전화' 슬쩍

쌍나팔

○…50대 남성이 찜질방에서 황금돼지 열쇠고리가 달린 휴대전화를 슬쩍했다가 CCTV(폐쇄회로 TV)에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7·무안군·무직)씨는 지난 21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B찜질방 안마실에서 송모(여·56)씨가 바닥에 놓아둔 황금 돼지 1돈이 달려있는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태연히 찜질방 안에서 쉬고 있었다는 것.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도 어렵고, 술에 취한 상태서 황금 돼지가 탐이 나 훔쳤다"고 진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